하나님의 말씀

태양 - 달 - 지구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새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계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을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0495 태양의 세계... 화산... 화산의 분출....4

자연의 태양....6

1012 태양....6

1013 태양....6

1014 태양....7

1015 태양....8

1458 구름 없는 하늘. 태양의 역사....8

태양의 빛....10

1756 사랑으로 섬기라. 빛의 전달. 빛의 전달자인 태양....10

1821 태양 빛의 광도....11

1822 빛의 발광 과정....12

4318 태양의 빛. 상호 작용....13

영적인 태양....16

0960 영의 태양. 천상의 정원사. 하나님의 말씀....16

4078 영적인 태양....17

7478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태양....18

7646 영적인 태양. 생명의 능력의 흐름....19

2892 영적인 태양. 번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20

달과 토성과 금성....22

7955 달....22

7960 우주. 행성에 빛의 비추임....23

1008 토성....25

1119 창조물의 다양성....26

1120 연구 작업....26

지구의 기원과 성장....28

3397 빛이 없는 행성으로써 지구. 빛을 받는 일....28

7942 창조의 작품인 이 땅의 생성....29

3504a 인류가 나타나기 전의 지구의 생성과정....30

3504b 이 땅의 시험과정. 새 땅과 그의 생성....32

지구의 변화....34

0945 이 땅과 태양의 충돌. 연구하는 사람. 이 땅의 내부....34

2448 이 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화산 폭팔.....35
6282 이 땅의 변화와 화산 폭팔.....36
6561 낙원과 같은 세상.....37
4336 이 땅은 영을 위한 학교이다.....38

태양의 세계... 화산... 화산의 분출...

B.D. No. **0495**
1938 년 7 월 5 일

전체의 태양계는 위대한 창조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태양의 세계를 시각화하고 싶다면, 당신의 이성은 진정으로 멈춰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들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초과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크기를 당신들도 이미 당신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구는 가장 작은 태양계의 크기와 비교해볼 때에만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우주 공간에는 다시 그들의 크기와 특성과 및 유형이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수많은 태양계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하는 목적입니다. 모든 태양은 지구보다 무한하게 확대되었지만 지구와 동일한 창조 작품입니다. 태양을 불을 뿜는 화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는 창조주께서 이 땅의 화산의 내부를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거주지로 삼도록 지혜롭게 설계하셨다고 생각할 때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의 하는 일은 무한한 분출을 일으키는 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분출을 통해 산의 전체 성질이 끊임없는 변화에 노출됩니다. 존재의 일부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형체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지구 위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창조주께서도 또한 전적인 의지로 그러한 분출을 허용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다른 발전 가능성을 향해 나아 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태양계에 주님께서 새롭게 생성된 행성을 우주에 두실 목적을 가진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태양은 영원히 활동을 합니다. 태양의 내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 격노하며, 그 원소의 힘에 의해 내부에서 우주로 일부를 던지고, 그곳에서 다시 영적 존재에 의해 붙잡히고 전적으로 자유한 자체적으로 일하는 행성으로 형성이 되고, 창조하는 영의 존재들에 의해 그 위에 존재해야 하는 모든 생물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성은 항상 행성이 출현한 태양과 어떤 연관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불을 뿜는 산의 분출물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지구 표면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분리된 물체는 이 태양의 인력을 통해 항상 이 태양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바로 이 태양으로부터 빛과 온기를 계속 공급받을 것이고 이런 공급이 없이는 행성이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을 통해 항상 서로 다른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

적 존재에게 어떤 면에서 더 성장해야만 하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아시는 가운데 한 장소로 가게 해줄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각 행성의 사명 만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영적 존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에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 만이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공간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고 그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태양.

B.D. No. **1012**
1939 년 7 월 20 일

태양은 사랑에서 빛과 광채를 얻는다. 이것을 잘 이해하라.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공급한다. 우주에서 궤도를 도는 수많은 태양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태양의 힘이 너희에게 설명하게 하라: 모든 천체가 움직이는 엄청난 속도를 아는 일이 가장 크게 중요하다. 마찰을 통해 어떤 저항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곳에 특별한 대기가 생성이 된다. 왜냐하면 마찰은 열을 생성하고 고립된 천체가 반드시 이 열을 방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온기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단지 특별하게 움직이는 천체이다. 그러므로 태양도 또한 차가운 물질일 수 있다. 그럴지라도 지구는 자신의 자전 속도를 통해 필요한 온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태양 광선이 이 땅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하나님의 힘이 태양 광선을 통해 이 땅과 이 땅의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일에 있다. 따라서 너희가 태양 광선으로 보는 것은 수많은 힘의 전달자들이고, 그들의 출처는 영원한 사랑의 영인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원한 신성 자신이 사랑의 선물을 제공한다. 모든 햇살이 셀 수 없이 작고, 가장 작은 미생물을 운반한다. 이 미생물은 이 땅의 생명체의 존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존재가 이런 힘을 계속하여 섭취하려면, 연결을 이뤄야만 하고, 연결이 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목적을 태양과 태양의 빛이 가지고 있다.

아멘

태양.

B.D. No. **1013**
1939 년 7 월 21 일

이제, 이런 놀라운 광도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특별한 빛을 발산하기 위해, 이로써 모든 면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상태에 머물기 위해, 이 능력들이 어떤 연관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영적 흐름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흐름이 볼 수 있거나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힘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아주 깊은 영적인 지식에 침투하는 질문으로 사람이 스스로 대답하기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실로 너무 부족하다. 단지 동시에 순전히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곳에서만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창조의 기적은 영적인 힘의 역사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에 대해 정보를 받을 권리를 얻는 일은, 그가 자신의 지식의 모든 빈틈을 메울 수 있고, 또한 메워야 하고, 그가 창조와 관련된 질문에 관심이 있다면, 그에게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이다. 바로 태양의 햇살의 발산의 역사는 사람들에

게 의심할 여지없이 자연 가운데 가장 큰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신성 자신이 이 땅에서 무한히 먼 곳에서 유래한 것을 다소 자세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결정적인, 위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가르침을 거의 또는 전혀 갈망하지 않는다.

두 원소의 중립적인 연결로 인해 새로운 입자가 생성이 된다. 이 법이 모든 것의 기초이다. 반면에 연구되지 않은 힘의 결합은 각 힘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힘을 억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찰을 일으킨다. 그러한 마찰이 발생하면, 중앙에 위치한 형체는, 형제가 굳은 물질이든 아니든, 불을 일으켜야만 한다. 즉,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에게 대항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빛의 나타남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힘에 대항하는 힘의 저항이다. 모든 영적인 힘의 흐름은 이와 동일하게 현상을 나타낸다.

아멘

태양.

B.D. No. **1014**
1939 년 7 월 21 일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은 그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 외에, 모든 지혜의 원천에서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데서 어떤 기쁨을 느낄 때 단지 이뤄질 수 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은 이제 그를 위해 의도된 선물을 받기 위해 인간의 심장을 여는 정도에 따라 유익한 효과가 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너의 선생님이 너에게 전해주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계속 진행하라:

태양의 빛의 발산의 효과나 전기 장치의 빛의 흐름은 더 많이 소모될수록, 더 많이 지속적으로 보충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 및 내부에 숨겨진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는 일이 첫번째 조건이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장애물이 차단시키거나 각 수신 장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땅으로 전해주는 통로에 어떤 종류의 장애물도 없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를 무시하면, 이 회로에 놓여 있는 모든 것에 크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주 예술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빛의 운반자인 태양이 나타날 때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빛의 발산의 효과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능함을 다시 증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당연히 이 땅과 이 땅의 거주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추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판단에 따르면, 태양이 이 땅에 빛을 발산하는 역사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의 격렬한 활동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더 강력한 힘이다. 왜냐하면 이런 힘이 그 아래에 있는 힘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 가장 큰 무리를 지어 이 땅에 접근하여,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중단을 막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이 태양 빛이 발산되는 근거이고, 이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존재들의 끊임없는 활동이 결국 하나님의 힘이나 영의 힘이 이 땅의 존재에게 눈깜짝할 사이라도 중단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태양이 이 땅에 끊임없는 빛을 비추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아멘

태양.

B.D. No. **1015**
1939 년 7 월 22 일

추측이 오류로 이어지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과학이 태양의 중심에 어떤 타오르는 물체가 있다고 여긴다면, 과학은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불 덩어리는 서서히 스스로를 소모되고 태양은 빛과 광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영원에 영원 전부터 그렇지 않았고, 또한 생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화로는 불더미가 있는 한 열기를 발산할 수 있지만, 모든 불덩이는 계속 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즉, 다시 발화하여 불씨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서 꺼져야만 한다. 태양에 적용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천체인 태양이 꾸준히 작아져야 하거나, 다른 천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겨야 하고, 동시에 하나가 되어, 화로에 빛과 열기를 제공하는 재료처럼 되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 실제 그러한 순전히 객관적인 주장이 필요하지 않다. 태양 빛의 발산은 완전히 다른 법칙에 근거한 역사이다.

하나님 자신의 힘이 외부 영향 없이 빛을 발한다. 하나님의 빛 자체에 힘이 있다. 이 힘이 중단없이 매일 매시간 우주를 향해 발산되고, 무수한 영을 가진 존재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에 의해 다시 전달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태양 광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직접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이 힘을 분배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너무 작은 가치를 부여하는 한 인간의 개념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태양 광선의 역사는 순전히 영적인 역사이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이 역사를 외적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모든 영적인 일은 그들에게서 숨겨져, 세상적으로 감싸인 가운데 있고, 성숙한 영의 세계의 활동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활동으로 깨닫지를 못한다. 그들의 영적인 것에 반대하는 힘의 무제한의 성장은 어떤 마찰을 일으킨다. 모든 물리쳐져야 할 존재들이 자극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 불이 붙게 된다. 영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이 땅에 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빛과 불의 흐름은 또한 이 땅에서 눈에 띄게 되어야만 하고,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광선 묶음으로 나타난다. 이런 과정은, 구원받지 못한 영이 여전히 우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동안에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숙한 영이 어떤 저항을 피하지 않고, 이 저항을 극복함으로써 영적인 힘이 필요한 곳으로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태양은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구름 없는 하늘. 태양의 역사.

B.D. No. **1458**
1940 년 6 월 7 일

구름이 없는 푸른 하늘이 사람의 위협하는 구름을 향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그는 즐거운 기대에 사로잡힌다. 이 땅의 걱정이 그를 우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쾌활하고 빛이 난다. 그는 태양의 빛을 기뻐한다. 그는 아름다움에 목마른 눈에 제공되는 모든 광경을 기뻐한다. 이런 광경이 드물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고귀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외부에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태양이 또한 사람의 심장 안에 반사될 것이다. 반면에 어둡고 많은 구름이 낀 하늘은 자주 사람에게 자주 불평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빛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중개자가 빛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사람에게 준다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영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로 인해 힘들이지 않고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가 빛의 존재들의 영향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면, 즉 내면의 느낌이 그를 촉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한다면, 이 느낌은 대부분 선을 긍정하게 한다. 따라서 그런 맑은 날에는 선을 행하려는 욕구가 비교적 강해진다. 인간이 자신의 내적 욕망에 저항하지 않고, 이로써 빛과 힘의 존재의 역사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자연적인 태양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깨우는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영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추구할 때, 인간의 영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가 자신을 태양의 자연 광선의 역사에 맡기면, 그에게 영적 힘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광선은 단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머물기를 원한다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태양 광선의 효과는 육체적으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적인 생명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이 땅의 생활에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햇빛의 광선이 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항상 의식적으로 높은 곳을 향한 추구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선행조건을 갖추면, 그의 효과는 엄청나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가져다준다. 이는 선을 향한 의지와 사랑을 하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깨닫는 능력이 특별하게 강하게 되는 일로 나타난다. 위를 향한 갈망이 강해질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항상 활발해질 것이다. 영적인 쇠퇴를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빛의 존재가 자원하여 여는 심장에, 의식적으로 태양을 향하고, 햇빛의 육체를 행복하게 하는 역사 외에, 영적인 역사를 깨닫고, 햇빛을 갈망하는 심장에 직접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으로 섬기라. 빛의 전달. 빛의 전달자인 태양.

B.D. No. **1756**
1940 년 12 월 29 일

우주의 모든 것이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존재하지만, 성숙한 정도에 도달한 존재는 어떤 창조의 작품과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 모든 창조물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존재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모든 이런 과제를 성취시키는 일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이런 과제는 항상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창조의 작품은 다른 유형이고 따라서 각각의 과제도 서로 다른 유형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존재는 그에게 영적 성장을 주는 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창조의 작품은 그들의 형상과 그들의 거주 조건에서 서로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항상 창조의 작품에 거주하는 존재의 성숙한 정도에 합당하다.

존재가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자원하여 복종할수록 더 큰 과제가 그에게 주어지고, 높은 영적인 수준이 이런 거처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는 곳을 거처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또한 빛 가운데 사는 일을 의미하고, 이런 삶이 항상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존재가 풍부한 빛을 전달하기 원하는 일이고, 빛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빛의 영역에서 사는 존재는 아직 무지한 존재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동시에 빛이 부족한 존재들에게 빛을 비춰준다.

따라서 빛을 주는 창조물은 항상 빛이 없는 창조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빛이 없는 창조물은 빛을 발산하는 창조물들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그러한 정도에 따라 한 창조물의 존재가 다른 창조물의 존재를 섬긴다. 빛을 전달하는 과정은 실제 지식을 전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외적으로 볼 때, 빛이 부족한 창조물에게 빛과 광채를 비춰주는 일로 나타난다. 빛의 발산은 빛을 발산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직 무지한 존재들에게 빛을 생각의 형태로 전해주는 일이고, 모든 생각은 빛과 힘이지만, 그러나 빛을 필요한 존재가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 빛의 전달이 이뤄질 수 없고, 어두운 상태가 계속된다.

빛을 원하지 않아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창조물의 존재들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지식이 적고,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의지는 아주 연약하고, 이미 빛 속에 사는 존재들이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권세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주로 창조의 작품 안의 거주자들이 빛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그러므로 스스로 자원하여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지식의 형태로 빛을 받아들이는 피조물에게 그들의 풍부한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는 창조물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들의 가르치는 활동이 이제 또한 어떤 면에서 그런 별들 에서 발산하는 빛에 대한 설명이다. 빛나는 빛의 형체인 태양은 항상 무수히 많은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창조물들에게 비출 것이다. 이런 일은 이미 높은 성장 정도

에 있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빛을 어두움 속을 걷는 존재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저세상의 존재들의 사랑의 활동이다. 어두움 속을 걷는 존재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창조물 속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빛의 전달자가 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지 만, 다른 창조물로부터 빛과 광채를 전달받는 존재들이다.

아멘

태양 빛의 광도**.**

B.D. No. **1821**
1941 년 2 월 20 일

아직 탐험 되지 않은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인간의 눈에도 보이는 태양 빛의 광도이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영접하고 있지만, 아직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이 땅과 이 땅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직 이 땅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 헤아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연구로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 법칙을 근거로 하지만, 이 땅 밖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더 이상 이 땅의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알려지지 않은 창조물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없고,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는 완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가 잘못된 기준 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깊이 생각한다면, 모순을 만나야만 하게 될지라도, 사람들은 인간의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확신한다. 그들은 깊은 믿음이 없거나 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오류를 설명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진실과 비교하여 완전히 틀렸다고 해야만 하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표면에 생물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태양은 지속적으로 이 땅으로 빛을 보내는 불타오르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거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는 굳은 물체는 그의 견고함을 잃고, 이로써 모양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불타고 있는 물체는 가연성이 있는 근본 원소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불에 붙잡혀 불에 의해 소진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만 함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태양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의 물질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마찬가지로 이 땅의 조건이 필요한 원소와 불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기본 원소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물질과 원소가 소진되게 되면, 빛을 발산하는 천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은 단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통해 이 땅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물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는 진실로 불충분한 많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현명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은 무한에 비해 단지 아주 작은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든 창조의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과 성질을 남김 없이 파악할 수 없다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들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의 지식을 벗어난 것들이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자연 법칙을 고려하면서 계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자연 법칙에 합당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자연의 법칙의 효과를 상상할 수 없고, 또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산해낼 수도 없다.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인간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는 단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세상의 연구자들조차도 그들의 결과를 증명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단지 믿어야만 하고,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잘못된 결론을 깨닫고, 거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의 전체 구조가 그런 오류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이제 확립된 가르침으로 세워지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 땅의 세상적인 관점이 퍼져 있다. 태양의 빛이 생성되는 과정을 아주 잘못되게 설명하는 주장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설명에 만족한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잘못된 관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혼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다면, 그런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일어나는 일처럼,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세상적인 역사로, 다시 말해 자연적인 역사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더 나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지혜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이 그에게 그런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면 그는 이 땅의 밖의 창조물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여긴다. 그렇게 하는 일이 진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고정된 의견을 갖는 일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질문자”는 알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 올바른 설명을 아직 항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에 관한 올바른 깨달음에 많은 것이 의존되어 있다.

아멘

빛의 발광 과정**.**

B.D. No. **1822**
1941 년 2 월 20 일

빛을 발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사랑을 행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다. 비록 빛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창조 작품이 아니지만, 빛의 광선은 눈에 보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작품으로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해야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빛을 형체로 보기 보다 더 많이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만 한다. 왜냐하면 빛은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한 빛으로부터 어떤 형체를 창조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다시 빛이 초자연적인 나라의 힘이라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진지하게 일하는 한, 이 땅의 모든 것을 형체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든 빛의 광선을 형성하기 위해 영의 존재가 가진 특정한 성숙한 상태가 필요하다. 이런 존재들은 이 땅과 이 땅의 법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깊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활동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흘러 들어오는 힘에서 주기를 원해야만 한다. 이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므로 그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 영적인 입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광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태양 광선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이 빛은 하나님의 힘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하는 수많은 존재들에 의해 이 땅으로 발산된다. 둘째로, 태양 광선은 이런 존재들이 지칠 줄 모르는 활동하는 증거이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모든 창조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저수지와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힘의 전달 없이는 창조물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므로 힘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이런 힘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과제를 가진, 이런 존재들이 스스로 받는 것을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의 활동에 창조물이 의존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명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필요한 존재를 향한 온전한 존재가 행하는 사랑의 역사이다.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넘치게 받는 힘을 자유롭게 되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으로 항상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준다. 이는 세상적으로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순수한 영적인 설명이다.

아멘

태양의 빛. 상호 작용.

B.D. No. **4318**
1948 년 5 월 30 일

힘과 저항의 상호 작용은 어떤 종류의 빛 현상에서도 나타나야만 한다. 또한 모든 빛의 생성은 두 가지 세력의 서로 대립하는 일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의 빛을 얻으려면,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태양의 빛은 아주 의미가 있는 멀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실제 보고 느끼지만, 그러나 절대로 태양의 빛의 근원을 확정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태양의 성질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빛의 현상은 항상 물질과 관련된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태양의 빛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기인하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태양을 볼 수 있고, 연구의 결과로 태양들 중의 하나로 여길지라도, 태양은 물질적 세계가 아니다. 태양은 순전히 영적인 천체이고, 실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은 창조물이다. 그러나 물질적 입자가 없다. 그러므로 단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땅의 눈은 아주 빛나는 빛을 보고, 이 빛에 의해 눈이 부시게 될 수 있다.

태양의 빛은 아주 큰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태양이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야만 한다. 우주에서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단지 이해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의 활동이 보이는 문이 열린다. 이 활동은 빛의 존재들이 어두움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세력들이 대항하여 싸우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여, 자신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대적자의 세력을 이기려고 한다.

영적인 창조물이 그 안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어두움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어두운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창조물에게 역사한다. 이런 일은 마치 끊임없이 두 상극의 최고의 응집력이 역사하는 것과 같다. 그의 결과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이고, 상상할 수 없게 센 빛의 원천이다. 온전한 영의 존재로부터 빛이 우주로 발산된다. 이 빛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영원한 빛 근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 어두움이 있는 모든 곳으로 빛으로써 볼 수 있게 전해지는 영적인 힘이다. 이 발산은 실제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 낸 빛과 유사하고, 빛의 광도가 최고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세상의 빛은 제한된 광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에 제한이 있는 것과 같다.

서로 대항하는 싸우는 세력들이 격렬하게 싸울 경우, 그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즉 극복할 수 없는 강도를 가지고 있다면, 발화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물리치거나 또는 삼켜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가지의 세력들이 역사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영의 세계에서 온 최고로 온전한 존재들의 세력들이고, 아직 묶임을 받지 않고 우주에 거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다.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들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의 힘은 엄청 나게 크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강한 저항을 기대하는 곳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믿는 곳에서 상대방의 세력과 싸운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빛을 혐오하고, 빛을 끄기를 원한다. 그러나 온전한 존재는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원한다.

어두움에 대항하는 빛의 싸움은 동시에 이 땅의 물질적 창조물 전체를 보존하는 일이다. 왜냐면 힘이 펼쳐져 무한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힘이 활용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활용하는 일은 단지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활동하지 못하게 된 존재에게 힘을 공급하여, 존재가 자신을 빛의 역사에 맡긴다면, 활동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세력과 부정적인 세력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생성하고, 그들의 싸움은 태양의 빛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발산하는 힘은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불의 힘이 아니고, 태양의 빛이 이 땅의 영역에 닿을 때, 또한 태양의 영역 안에 있고 태양으로부터 빛의 힘을 공급을 받는 행성들에 닿을 때, 이 땅의 영역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 왜냐면 태양은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의 싸움을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깨달음을 성장과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영역을 넘어서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즉 태양 빛의 원인을 연구를 통해 절대로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 인간의 이성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인간의 생각할 능력을 넘어서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이 영을 깨어나게 해주면서 사람에게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구는 실제로 연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연구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는 세상적인 이성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람은 세상과 비교하는 일을 통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 이 땅의 영역 밖의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완전히 다른 법칙과 다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오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역사와 다른 법칙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없다.

아멘

영의 태양. 천상의 정원사. 하나님의 말씀.

B.D. No. **0960**
1939 년 6 월 12 일

영의 태양이 떠오르고, 그의 빛이 심장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불을 일으킨다. 지혜가 빛을 내고, 다가오는 아침을 밝게 한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빛에 의해 깨어난다. 모든 생명의 성장하고, 활동하려는 의지가 활기차게 된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태양의 온난한 빛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뤄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는 태양처럼 혼에 힘을 주고,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인간의 심장에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에 정원사가 포함되어 있다. 정원사는 또한 지혜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이 돌보는 대상에 태양 광선에 노출시켜, 그들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그는 뜨거운 열기로부터 연약한 식물을 보호한다. 그는 굶주린 이 땅의 자녀가 직접 영의 나라를 들여다보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이 땅의 자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녀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고, 태양 광선의 행복하게 하는 역사를 빼앗지 않는다. 그는 이 땅의 자녀에게 계속하여 영의 양식을 제공하여, 그의 번영과 그의 계속되는 성장을 보장한다. 빛과 따뜻함 또는 비와 이슬을 받지 못하는 작은 식물은 시들고 곧 죽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로부터의 양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땅의 자녀는 최고의 꽃 봉우리로 성장할 수 없다. 그는 지속적인 영의 힘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에게 중단되지 않고 공급될 때, 그가 단지 성장할 수 있다.

하늘의 정원사는 하늘의 사랑과 인내로 식물을 돌본다. 그는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창조물이 생성되게 한다. 모든 것이 그의 뜻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영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동산은 그의 창조적 의지에 맡겨져 조심스럽게 소중히 간직되고 관리된다. 주님은 그의 태양이 모든 작은 식물에 비추게 하고, 모든 작은 식물은 빛을 추구한다.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때때로 빛의 유익한 결과를 주는 영의 태양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장 귀중한 식물인 그는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양분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영의 빛과 사랑의 따뜻함을 받아드리지 않느냐? 작은 식물이 자신이 동인이 되어, 그에게 충만하게 모든 능력으로 제공이 되는 영의 태양의 유익한 효과를 벗어나, 피폐해지고, 완전히 죽는다. 빛과 따뜻함이 있는 태양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이다. 마찬가지로 영의 태양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영원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아멘

기도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들을 위에 영적인 태양이 떠오른다. 그들 안이 밝아지고, 빛나는 아침이 어두운 영의 밤을 대체했고, 낮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에게는 더 이상 밤이 뒤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한번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영원히 깨달음 안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영의 태양이 사람을 비출 때, 그의 심장이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왜냐면 낮이 되면, 밤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느낌이 평안과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때때로 작은 구름이 실제 아직 영의 태양의 광선을 덮을 수 있고, 인간의 삶에서 그를 불안하게 하는 흐린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태양 광선이 항상 더 밝고 더 깊게 비출 것이고, 마침내 사람은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태양의 열에 의해 모든 불결함과 거짓이 소멸되어, 광선이 더 이상 저항을 받지 않게 되고, 사람이 완전히 영적이 될 때까지 비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태양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고, 태양의 빛이 없이는 어떤 것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영의 태양 광선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축복되게 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가장 깊은 지식 안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자신이 이 지식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자신이 동시에 빛의 전달자가 되고, 큰 태양에 의해 공급을 받는 작은 태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영의 태양의 광선에 의해 영화가 된 영적인 재물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의 태양의 광선은 그의 힘을 잃지 않고, 빛으로 제공된 영적인 재물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이로써 이웃 사람들이 또한 어두운 밤이 벗어나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태양 아래 살지 않는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밝은 빛을 피하고, 물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영적인 말을 피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갈망하지 않고, 완고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계속되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지식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활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지 귀로 듣고, 심장으로는 듣지 않고, 태양 광선의 유익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태양의 광선 앞에 나서지 않고, 그러므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태양의 영적인 광선의 유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을 사랑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황혼의 상태에 머문다. 왜냐면 그들은 빛을 갈망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태양의 광선이 비추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흐름의 영역을 피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다시 그들에게 빛이 높은 곳에서 제공되면, 완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절대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 안은 영원한 밤으로 머문다. 그러나 밤은 사람의 친구가 아니다. 영적인 밤이 있는 곳에 혼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고, 혼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느끼려면, 낮의 빛이 혼에게 역사해야만 하고, 혼이 영원히 살기 원하면, 영의 태양의 광선을 받아야만 한다. 혼은 밤을 피할 수 있고, 혼은 언제든지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그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일은, 비록 의식하

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탁하는 일은 유일하게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기 원하면, 사람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원하면, 이런 모든 일이 먼저 일어나야 만한다. 그러나 그는 빛 안에 서게 되었고, 영의 태양이 그를 위해 떠오른 것이고, 더 이상 밤이 없고, 어두움이 그 위에 퍼지지 않고, 그는 모든 곳에서 밝은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낮의 빛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갈 것이고, 이 길은 목표로 이끌 것이고, 혼을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혼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왜냐면 혼이 아침의 빛 가운데 깨달은, 그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빛인 분이 항상 어디서나 혼을 동행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태양.

B.D. No. **7478**
1959 년 12 월 15 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영적인 태양이 너희 심장 안에 빛을 비춘다. 그는 모든 것에 빛을 비추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친다. 영적인 태양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위로부터 온 빛으로 너희 심장 안에서 반응을 얻고 너희 안에서 너희 곁에서 역사해야 한다. 영적인 태양은 모든 빛의 근원인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는 사랑과 빛과 진리의 근원이다.

나는 자신을 열고 내 사랑의 빛을 자신 안에 들어오게 허용하는 전 우주의 모든 세상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에게 쉬지 않고 나 자신을 비춘다. 이 태양이 빛나는 곳에는 어떤 어두움도 영원히 물러난다. 다시 말해 영적인 태양의 사랑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 가운데 있고 모든 영적 어두움이 그를 떠난다. 어두움이 떠나면, 비록 그가 어두움을 벗어나 내 사랑의 태양의 흐름의 회로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큰 은혜를 혼이 행복하게 느끼는 만큼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는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내 태양은 모든 사람을 위해 비춘다. 단지 이 빛을 피하고 자원해 어두움을 구하는 사람은 태양의 빛의 좋은 행실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두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이 빛줄기가 그들에게는 비추지 않는다. 위로부터 내 말이 모두를 위해 울려 퍼진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행실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모두가 그의 빛을 갈망하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 어두움에 거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피한다. 내 종을 통해 그들에게 빛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 줄 때 그들은 이를 듣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서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두움을 향해 간다. 그러므로 그의 심장에는 기쁨이 없다. 왜냐면 어두움이 그로부터 모든 기쁜 감정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심장을 밝혀줄 수 없는 세상의 그림자 빛을 따라 갈지라도 어두움이 그를 짓누를 것이다.

그들은 내 신적인 사랑의 빛안에서 즐길 수 있었다. 그들은 측량할 수 없게 복될 수 있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 안의 모든 것을 밝혀주는 전에 흑암과 혼돈가운데 있었던 것을 투명하게

해주는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위와 같이 느꼈을 것이다. 혼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의 빛살 아래서 행복하다.

혼은 내 비추임을 행복한 것으로 느끼고 항상 이 영역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러나 혼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느냐는 그 사람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만이 혼이 영적인 태양의 빛 아래 있을 것인지 이 빛을 벗어 나 다시 깊은 어두움이 혼을 감싸는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 있을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온 내 말을 듣게 받아 들이게 강요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의 빛에 자신을 열지 또는 자신을 닫고 자신의 타락과 멸망을 위해 빛을 피할 것인지 항상 그의 자유의지가 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은 단지 빛 가운데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어두움의 상태는 혼에게는 고통의 상태이다. 그러나 영적 태양은 쉬지 않고 그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로 발산한다. 빛을 갈망하는 모든 존재는 빛의 영역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넘치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의 태양은 가장 밝은 빛을 비추고 빛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태양. 생명의 능력의 흐름.

B.D. No. **7646**
1960 년 7 월 11 일

영적인 태양은 그의 빛을 비춘다. 너희 모두는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비침받기 위해 이 영역에서 머물러야 한다. 영적인 태양은 나로부터 나오는 내가 창조한 내 모든 창조의 작품의 생명을 보장하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도달하기 원하는 사랑의 빛이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은 내 사랑의 힘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태양으로부터 항상 비추임받아야 한다. 존재가 이제 아직 형체 안에서 묶임을 받고 있든지 사람의 혼이든지 모든 존재들이 단지 내 비추임을 통해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일할 수 있다. 왜냐면 존재들은 비추임을 통해 나로부터 일하기 위해 필요한 이로써 생명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추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인간의 상태에서는 만일 그가 원하면, 이 비추임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할 수 있다. 왜냐면 그의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그에게 임하는 비추임의 강한 정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정도도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의 능력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인 태양이 비추이는 영역에 더욱 들어갈수록 그는 자신의 혼이 받아 영접하고 단지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는 영적인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능력은 사람의 혼이 온전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고 이 혼은 영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축복받는다.

일하는 것은 항상 생명을 증거한다. 일하는데 항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내 사랑으로부터 능력은 존재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또는 성숙한 정도에 따라 모든 존재에게 감동을 주면서 항상 발산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의 작품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없을지라도 모든 창조의 작품들은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해 그들의 겉형체가 변화 된다. 이런 모든 창조물들이 유지되게 서로 간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이런 제공되는 능력은 창조의 작품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생명의 능력이 주어 진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들어서면서 그가 영적인 태양의 비추임의 영역에 들어서면서 그가 자신의 세상적인 일 외에 영적인 일을 하면서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역사하면서 즉 세상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 안에서 일하면, 영적으로 역사하는 일을 하면서 생명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적인 태양으로 비추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에게 내 신적인 사랑의 태양이 비추고 그의 심장에 감동을 줄 수 있다. 혼은 이 비추임을 영접하고 특별한 일을 하게 인도받을 것이다. 혼은 쉬지 않고 사랑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사랑을 통해 절대로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항상 일한다. 혼은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흐름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혼의 운명이었던 죽음의 상태를 벗어난다. 혼은 다시 생명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혼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축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내 사랑의 힘의 흐름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다시 내 뜻대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다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축복된 신적인 존재인 내 형상이 된다.

아멘

영적인 태양. 번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

B.D. No. **2892**
1943 년 9 월 23 일

영의 태양이 이제 떠오르려고 한다. 영의 태양이 생명으로 깨어나야 하는 모든 곳으로 빛을 발하고, 영의 태양의 빛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의 심장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일은 예언이 된대로 가까운 종말의 표시이다. 진리가 번개처럼 빛을 비추고, 불을 붙여, 더 이상 작은 빛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진리 자체가 하늘에서 오는 빛이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이 땅에 널리 퍼진 영의 밤을 물리칠 것이다. 왜냐면 빛이 어두움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심장들을 자신의 빛과 말씀으로 비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기 원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어두움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광선을 너희 심장에 비추게 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다.

이 시간에 하늘과 이 땅의 주님이 자신을 계시한다.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드는 싸움을 시작하라. 나를 너희의 장군이 되게 하라. 저와 함께 나를 위해 싸우라. 너희는 죽음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에게 무엇을 제공하기 원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유혹하게 하지 말라. 너희에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약속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인도를 받으라. 인내와 순복하면서 이 땅의 삶의 아직 짧은 시간 동안을 견디라. 너희가 쓰러질 위험에 처하게 되면, 나의 사랑이 너희가 짊어지도록

도와줄 십자가를 짊어지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태양의 빛이다. 나는 밤에 너희를 비추는 빛이다. 나는 진리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 선다면, 살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의 태양이 너희를 비추고, 너희를 따뜻하게 하고, 나의 사람의 태양의 밝은 빛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때, 너희는 영의 밤을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많은 심장 안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타오르고, 심장 안에 불을 붙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도피하는 사람은 내 사랑의 불의 힘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는 차갑게 머물고, 문과 창문을 닫을 것이다. 이로써 빛이 그의 내면에 비추지 못하고, 그의 주변이 깊은 밤이 될 것이고, 깊은 밤으로 머물 것이다.

떠오르고 질 때까지 번개가 빛을 발산할 것이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나타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려고 시도하고, 순수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시도한다. 나는 모든 곳에서 나를 나타낸다. 이로써 사람들이 나를 깨닫고, 내가 그들을 나에게 이끌기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떠오르고 질 때까지 사랑을 행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장 안에서 나의 말씀이 들리게 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운 종말을 알린다. 그러므로 나는 종말 전에 그들에게 나에게 인도하는, 나의 심장으로 인도하는 길을 밝혀준다. 이로써 그가 어둡고 빛이 없게 하지 않고, 밝은 빛이 되게 하여, 그가 눈을 감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 걷는 일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나의 영원한 태양 빛이 비추는 곳에 복된 땅이다. 너희 사람들은 그 곳으로 모여야 한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의 빛의 광선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하늘에서 온 빛인 진리를 받아드려야 하고, 주저함이 없이 나의 은혜의 역사에 너희 자신을 맡겨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의 영은 가장 어두운 밤을 물리치는 가장 밝은 빛이다. 나의 영은 영원으로부터 원래 빛인 나 자신의 발산이다. 나의 영은 나의 영에게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심장 안에서 빛을 발산할 것이다.

나의 영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빛을 향한 갈망이 있는 모든 곳에 거한다. 그러나 사람이 빛을 피하는 곳에서는 나의 영을 비춰줄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이 영의 어두움 속에서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영원한 빛인 나는 빛을 발산한다. 나는 나의 영을 받기 원하고,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나의 영을 부어준다. 나의 영이 그들을 깨어나게 하면, 그들은 또한 빛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하늘에서 떠오르는 영적인 태양처럼 떠오를 것이고, 그들의 광선을 발산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따뜻함을 줄 것이고, 죽고 생명이 없고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에게서 빛을 받았고, 그들은 그들의 심장을 열고, 나에게 들어오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안에 밝은 불을 지폈고, 결코 그의 빛을 잃지 않을 영의 태양을 비추어 주었다.

아멘

달.

B.D. No. **7955**
1961 년 8 월 2 일

나 자신이 단지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줄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알고 또한 빛이 충만한 모든 존재도 또한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빛이 충만한 모든 존재가 나에게서 진리를 받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사랑의 빛을 무한 가운데로 발산하는 일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어느 정도의 성숙해 도달해야만 하거나 또는 이 땅의 영적인 위험을 줄이는 사명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비추임은 항상 진리를 전해주는 역사이고 영의 영역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는 역사이다. 이런 지식은 단지 직접 비추임을 받은 일 외에는 달리 얻을 수 없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의 빛을 영접 할 열린 그릇이 필요하다.

모든 온전한 영적인 존재들은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과 힘의 충전소로서 항상 또 다시 섬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온전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도움을 줄 목적으로 내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는 충전소로서 이런 일을 허용하는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할 수 있다. 나는 또한 내 지혜가 사람들의 혼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깨닫는다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한 그릇을 사용한다. 이 그릇은 사랑을 통해 내 사랑의 흐름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한 그릇이고 그러면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받는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들은 진리에 합당한 답변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답변이 너희의 혼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나는 항상 너희에게 답변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해야 할 질문은 영적인 질문들이어야 한다. 왜냐면 세상적인 일에 대한 지식은 혼을 성숙을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오류는 너희에게 해롭고 모든 오류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의 결과가 영적인 결과이든 세상적인 결과이든 전혀 상관이 없이 너희가 이런 결과를 느끼기 때문이다. (달에 관한 이전 논쟁에 대해) 가장 단순한 대답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달은 끊임없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그러나 달이 항상 태양이 비추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달은 영적으로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지구는 자전을 통해 항상 지구의 다른 부분이 태양 광선을 받고 그러므로 지구에 빛과 어둠이 있다. 달은 공전을 하지만 공전을 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는 달은 지구와 같은 때에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없고 달이 위성으로서 움직이는 동안에 항상 단지 달의 일부가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달과 이 땅의 간격의 결과로 달이 공

전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므로 태양 광선이 동시에 달에 도달할 수 없고 지구와 태양의 위치에 따르는 특정한 리듬을 따라 간격을 두고 태양 빛이 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그림자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빛을 계고 반사하는 것이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태양에서 빛이 비추고 그러므로 또한 달의 지구와의 위치에 따라 태양 빛이 달에 도달할 수 있고 이로써 항상 변한다. 왜냐면 달은 위성으로 지구를 동행하지만 그러나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와 같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달은 우주에서 지구를 동행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전을 하지 않고 이로써 지구 거주자들이 항상 달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달은 항상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있고 이 빛은 다른 행성에게 의해 전혀 방해를 받을 수 없다.

달은 항상 지구를 동행한다. 그러나 지구의 끊임없는 자전으로 인해 지구 거주자들의 시야에서 달이 숨겨져 이 땅의 거주자들이 일시적으로 달을 볼 수 없다. 왜냐면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추지 않거나 또는 지구의 그림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거주자들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구의 반대편에 달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달이 지구를 향하고 있으면 태양과 달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이런 일은 낮에도 가능하고 밤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태양의 빛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구와 달의 위치로 인해 일어난다.

아멘

우주. 행성에 빛의 비추임.

B.D. No. **7960**
1961 년 8 월 7 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려라.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눌린 가운데 있으면 나는 진실로 너희가 내 자녀로서 불러야 할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너희의 모든 염려를 넘겨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항상 또 다시 증명해 너희가 내 사랑에 응답하게 즉 나에게 돌아오게 하길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내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항상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다시 드리는 너희의 사랑을 얻기 원한다.

너희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너희를 한 동안 너희가 나를 부르게 해야 할 고난 가운데 둔다. 그러면 너희는 감사하면서 내 도움을 영접할 것이고 너희 안에 분명하게 임재해 있는 아주 선한 아버지를 깨달을 것이고 너희 심장은 사랑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향할 것이다.

나는 단지 이 일을 추구한다. 영적인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지면, 이를 영접하라. 왜냐면 이 소식은 빛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소식은 진실로 어두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빛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어둡게 느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것이 어두움의 나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이런 세력이 표현하려고 하면, 내가 이 세력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로부터 단지 순수한 진리 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단지 조건 없이 믿으면, 그러므

로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 적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영을 밝게 해주는 일은 나에게 언제든지 가능하다. (7955 참조)

진리를 향한 의지가 이런 일을 보장한다. 비록 사람의 성장 정도가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를 오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리를 향한 의지로 만족한다. 너희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믿을지라도 우주의 법칙이 너희에게 아직 남김 없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 자신으로부터 설명을 받으면, 너희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주장하는 증거는 단지 논쟁할 수 있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태양의 빛이 비추이는 영역은 법칙으로 정해져 있다. 왜냐면 천체는 크거나 적게 굳어진 영적인 입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입자가 굳으면 굳을수록 이 창조물은 더욱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고 영적인 입자들은 빛의 비추임을 더욱 방해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의 비추임을 받지 않게 된다. 왜냐면 저항이 내 사랑의 빛이 비치는 능력을 적게 하거나 또는 무력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칙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우주 가운데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법칙 아래 놓여 있다.

이 법칙은 그러므로 서로 다른 천체와 그 안에 거하는 거주자들의 영적인 성장 정도를 그리고 빛을 거부하는 정도를 정한다. 그러므로 태양은 가장 밝은 빛을 발산할 수 있다. 그러나 천체는 태양의 빛의 능력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창조의 작품이나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지 못한 관점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그의 특성이 가장 낮게 성장을 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천체라고 말할 수 있는 달이다. 그러므로 달이 태양의 비추임으로부터 제외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의 빛의 효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달에 거주하는 존재들도 변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태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양의 달에 대한 역사는 변화 된다.

이런 설명은 항상 단지 영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만한 설명을 구한다. 이런 설명은 전적으로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다는 내 말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지구는 우주 가운데 가장 작은 피조물이기이다. 지구의 거주자들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운전하고 있는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해 모든 빛과 모든 깨달음을 잃게 되었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가장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비로소 다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위해 내가 창조한 내 모든 창조물을 가진 우주를 헤아려 볼 수 있기 에는 아주 적은 모든 연관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 밖에 있는 창조물의 내부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노력은 헛된 일이다. 이 땅과 비교하여 다른 천체의 크기 비율을 숫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천체에 미치는 태양의 영향과 빛의 강도를 측정하려는 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천체를 연구하기 위해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은 단지 영의 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땅과 다른 천체와의 연결은 없다.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지날 수 있지만, 이런 연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는 한 천체와 다른 천체를 분리하는 장벽이 없다. 두 천체 사이의 넓은 공간에 영의 존재들이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그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다.

이 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천체인 토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공하는 일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더 높은 영의 존재의 과제이고, 그들은 알기를 갈망하는 너희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설명을 해준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사람도 토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토성의 크기를 측정할 만한 측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크기는 이 땅의 추측을 넘어서는 개념이고,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한대와 같기 때문이다.

이 천체의 기본 물질도 이 땅의 기본 물질과 같지 않다. 기본 물질은 상상할 수 없는 광도를 가진 투명하고 밝게 빛나는 금속이다. 이런 발광 물질을 가진 영역에 거하는 모든 존재는 빛나는 빛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다. 그들은 영의 흐름에 대한 아주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으로도 월등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빛의 상태에 의시적으로 도달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잘 훈련된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 존재들의 과제는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영적인 존재들을 돌보는 일이다. 이런 존재들은 또한 이 땅의 생명체와 같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존재가 머무르기 위해 사용하는 겉형체의 크기의 비율은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영의 힘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효력이 있다. 그럴지라도 존재들에게 성취해야 할 일이 있고, 이일은 각각의 육체를 입은 일과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이 존재들은 또한 천체의 표면에 서로 다른 겉형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불완전한 영의 존재로서 어떤 겉형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겉형체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더 쉽고, 더 낫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언제든지 동시에 겉형체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토성에 생명체가 있다. 그러나 이 생명체는 어느 특정한 성숙의 정도에 도달한 생명체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천체에서 머무르는 일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빛의 충만함은 특정한 빛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특정한 법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설명해주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존재들의 활동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비유를 통해 단지 설명해줄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기 하는 일이 이 존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연관성 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존재들은 이 땅의 삶과 유사한 삶을 존재들 사이에 완전한 조화와 영적 연합이 된 가운데 살아 간다. 이에 합당하게 그들의 집도 완벽하다. 그들 자신의 지능에서 나온 영광스러운 창조물이 천체의 표면을 아주 매력이 충만한 거처로 만든다.

창조의 세계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행성의 표면의 구성과 그 안에서 사는 존재들의 생활 조건은 서로 다르다. 마찬가지로 기본 재료는 항상 다른 종류이다. 그러나 한 신성이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고 인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에게 무수한 가능성이 제공이 된다. 이로써 존재가 영원토록 계속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축복을 얻고, 자신의 온전한 정도에 따라 나눠줄 수 있다.

아멘

창조물의 다양성.

B.D. No. **1119**
1939 년 9 월 27 일

인간이 보는 창조물은 창조의 작품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인간의 눈에는 숨겨져 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숨겨져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에 대해 추론해보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일은 항상 그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물 전체는 이 땅과 종류와 형태가 완전히 다른 수많은 기적의 작품들을 보여준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무수한 창조물을 볼 때, 이렇게 형성된 것이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이나 천체에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같은 창조물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야만 한다. 다른 별이나 천체에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같은 창조물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해야만 한다. 천체는 셀 수 없이 다양하게 창조되었다. 각각의 천체 그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다양한 피조물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창조물이 다시 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돕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천체가 어떻게 법을 정한 분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어디에나 있는 생물들은 그들의 외형을 변형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별에서 살고, 원래 초기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그들의 과제를 수행한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창조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다가오는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창조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또한 다가오는 변화를 영적인 측면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 허용이 된다.

(중단)

연구 작업.

B.D. No. **1120**
1939 년 9 월 28 일

별. 금성.

가장 지칠 줄 모르는 연구는, 동시에 영적인 측면의 지원을 구하지 않는 한,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원이 깨달음이 없이 단지 영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밖의 모든 창조물은 동일한 물질적 법칙을 가져야만 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자연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하고 출현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째로 모든 창조물은 이제 다른 자연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고, 둘째로 물질적인 면에서 또한 모든 각각의 창조물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창조의 세계에 거주하는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한 기본 조건은 아주 서로달라, 인간의 학문이 순전히 과학적으로만 창조물을 연구한다면, 인간의 학문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는 완전히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 과학이 진리에 아주 적게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각과 이해력과 판단력은 이 땅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창조물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지 적다. 인간이 기본 원소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 원소가 다른 별에서는 완전히 의미가 없고, 이런 기본 원소에 대한 지식을, 사람이 해명하기 원하는, 어떤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창조 작품의 비밀을 꿰뚫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야 한다. 사람은 저세상의 영의 세력과 영적으로 연결을 이뤄야만 하고, 처음 온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받아드려야만 한다. 이제 이런 일이 너에게 가능한지 시도해보라.

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별은 너희가 금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별이다. 너희는 절대로 이 땅과 같은 구성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금성에 일정한 간격으로 밝은 영역이 있어 보는 사람에게 다양함을 선사하고, 아주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 지역에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한 종류의 존재들이 살고 있다. 존재들이 이 지역에 단지 일시적으로 머문다. 왜냐하면 이 별도 또한 존재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행성 전체의 표면은 사랑스럽게 보이고, 주민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행복한 거처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처를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이 땅에서의 이해와는 아주 다르다. 때문에 단지 영적 체험이나, 보는 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받은 인상을 이웃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전해주는 일은 말할 수 없게 어렵다. 그러나 금성과 이 땅의 사이에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연결이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단지 부족한 인간 지식을 대체해주는,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으로 침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특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필요하다.

아멘

빛이 없는 행성으로써 지구. 빛을 받는 일.

B.D. No. **3397**
1945 년 1 월 7 일

셀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이 세계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주이고 유지자로서 영양과 찬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즉 빛이 없는 행성의 거주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지구도 또한 아직 빛이 없는 행성이고, 지구의 주민들은 다양한 성장 정도를 보여주며,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영원한 신성을 깨닫고 인정한다.

이 땅에 있는 존재인 사람들에게 빛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빛은 빛을 받아드릴 용기를 찾을 때, 빛이 없는 별에서 빛 전달자로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 자신의 빛을 비추고 자신의 광채를 발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의 전달자들에 의해 깨닫게 되고 사랑 받고, 찬양과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 땅은 어두움 속에 머문다. 이 땅은 무지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행성이다. 비록 존재들에게 예상치 못한 빛의 힘이 비춰줄 수 있을 지라도, 이 행성은 이 행성의 거주자들에게 어두움과 끊임없는 싸움을 의미한다.

그들의 목표는 빛이다. 그러나 이런 행성의 주민들은 빛을 추구해야만 하고, 빛을 받고 붙잡아야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시도해야만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빛이 모든 충만함으로 이 땅에 비출 수 있고, 이 땅은 빛의 땅이 되고, 빛나는 행성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유지자로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 영원한 빛인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면, 빛이 끊임없이 이 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땅과 이 땅의 주민들에게 영원한 사랑 자신이 이 땅에 거했고, 이 땅에 빛을 주었고, 즉 빛이 없는 이 땅에 자신을 빛을 비추었고, 이 땅의 주민들이 빛과 함께 하고 자신들에게 역사하게 한다면, 이 빛은 그들에게서 영원히 빼앗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가 빛을 추구하고, 사람이 영원한 빛과 연합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땅은 우주에서 밝게 빛나는 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은 절대로 빛이 없을 수 없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 자신이 자신의 빛을 비추는 곳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고, 그 곳에서 빛이 없음이 추방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깨닫게 되고, 그의 전능함과 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

아멘

영적인 존재들의 이 땅의 과정은 영원에 영원한 기간의 과정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 스스로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의 구성 요소인 물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 땅의 창조의 작품은 물질이다.

한때 하나님에 의해 생성되어 나온 영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써 발산되어 나온 존재가 스스로 자신 내면을 반대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굳어진 영적인 입자가 되어 이제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끝없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왜냐면 이런 변화도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성장 단계에 있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갑작스럽게 만드러낸 작품이 아니다. 왜냐면 서서히 성장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또 다시 분해 된 영적인 입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형체가 되었다.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예정한대로 항상 성숙해지는 영적인 존재들이 거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지기까지 이런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이 긴 기간의 과정이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인간으로써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 했다.

인간으로써 마지막 이 땅의 과정은 영원히 길었던 이 땅의 이 전의 성장 과정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와 같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형체를 창조하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의 역사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이 모든 그의 생각을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물질적인 변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정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런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어떠한 형체를 입히기 위해 이 형체 안에서 아주 미미 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위해 이 형체가 서서히 분해가 되어 변화될 수 있기까지 다시 영원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위해 그의 사랑의 힘이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저항을 줄일 때까지 가두어 둔다.

이 땅이 생성되어 생명체들이 존재하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생명체들이 다시 끝 없이 긴 시간 후에 이 땅이 사람들의 마지막 양육을 위해 섬기는 합당한 장소가 되게 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의 모든 입자들이 창조물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높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타락은 끝이 없어서 바로 어떠한 이런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존재에게 자신의 의식하게 해주어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 높은 곳을 향한 마지막 과정을 가능하게 해줄 정도로 성장하는데 끝 없이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창조물은 이전에 이루어졌다. 창조물은 이제 모든 셀 수 없이 많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에게 귀환하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창조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을 아직 예견해 볼 수 없다. 창조물들은 존재한다. 이제 모든 것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그의 길을 간다. 창조물은 항상 계속하여 형체를 바꾸면서 항상 또 다시 높은 곳을 향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러므로 모든 물질적인 창조물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입자에 의해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창조의 작품은 새롭게 되고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섬긴다. 그러나 창조의 작품은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섬긴다. 왜냐면 창조의 작품들이 이 땅의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의지를 빼앗긴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어떠한 형태 안에서 섬기고 이를 통해 서서히 성장해 나간다.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다시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위로 성장하는 대신에 정지 상태에 있거나 또는 다시 퇴보할 수 있다. 그의 마지막 성장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실패는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또는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이 다시 자신의 영적인 입자가 이 전과 마찬가지로 굳어지고 이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로 혼이 다시 한번 분해가 되어 다시 이 땅의 물질의 창조물의 과정을 가는 일이 요구 된다.

이제 이런 필요하게 된 과정은 다시 분해가 되어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이는 이 땅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런 강력한 변화에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근거하여 항상 한때 타락했던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의 창조의 작품에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가 만일 더 이상 너희의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마지막 완성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편에서 언제든지 이런 역사를 함을 예상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 안의 혼이 성장하게 해주는 일이 혼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 되어 나온, 그러나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타락했던 혼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일이 바로 모든 창조의 작품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돌아오는 길을 만드셨다.

아멘

인류가 나타나기 전의 지구의 생성과정.

B.D. No. **3504a**
1945 년 8 월 1 일

한 구원의 시대의 시작점과 끝점의 시간간격이 너무 길어,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서서히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긴 것 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기초로 하고 있고, 또한 서서히 성장하는 일은, 피조물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창조이래로 모든 볼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강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빼앗아, 즉 전적으로 의지가 없이, 정해진 의지만 가지고, 정해진 창조물들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한때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졌던 영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단지 하나님 법칙을 따르도록 강요받음으로 이뤄진다.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는 쉬지 않고 활동한다.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활동하지 못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는 외적 형체 안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

영적인 존재는 무한한 세계 속으로 자유한 영으로 창조되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입자들이 차갑게 되어, 굳어지고, 그의 내면에 자유가 전혀 없어졌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열기를 자신을 떠난 존재로부터 거두어 들였다. 모든 생명과 온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차가운, 생명이 없는 덩어리로 남게 되었다. 초기 창조가 시작되어, 생명이 없는 덩어리가 생명의 낌새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반발심을 포기하고, 빛을 받을 만하게 자신을 만들고, 빛을 열망하는 결단을 하는데 끝없어 보이는 긴 시간이 걸렸다. 아주 작은 의지의 변화도 그의 외부 형체와 묶임을 풀어주어, 생명이 없는 덩어리에 작은 요동이 일어나고,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굳은 덩어리가 때때로 자기 안의 영적인 존재의 자극을 받아들여, 부서지게 되어, 영적인 존재들이 아주 적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끝없이 긴 시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형체와 형상들이 창조 되었고,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활동하고, 이런 활동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정해져, 수많은 종류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활동은 항상 광범위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은 더욱 다양해지며, 동시에 자신을 분해할 능력이 증가된다.

왜냐면 입자들은 더 이상 강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발심이 줄었다는 것은 빛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명과 활동과, 이로 인한 묶임이 느슨하게 되어, 즉 분해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즉 부드러운 외부 형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리를 이만큼 줄여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허용받기 위해,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물질세계의 창조에서부터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진 첫 사람이 태어나,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될 때까지, 끝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사람들에게 닥칠 빛과 어두움이 싸움을 시작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창조물을 거치는, 끝없이 긴 과정을 마친 영적인 존재가 그의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자유의지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인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다시 빠져들어 갈지 증명해야만 한다.

아멘

즉 인간의 시대에 앞서 이 땅의 성장의 시대가 선행되었다. 이로써 창조물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조성되었다. 왜냐면 이런 환경이 인간이 영적 성장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한때 지배하려 했던 의지로 인해 벌어드린 상태인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으로 섬겨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생성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창조하고 형성하고 창조물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대적자 루시퍼의 뜻과 하나님의 힘에서 나온 모든 창조물들이 영원한 신성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존재는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존재가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이요 창조주로 인정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신적인 뜻에 복종할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이 사람들에게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인간 활동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과제를 수행할 첫 번째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 과제의 성취가 형체로부터의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을 보장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의 성장 기간 동안에 영적인 존재를 향한 권세가 없었던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부여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신을 위해 인간의 의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은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다. 왜냐면 사람이 전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할지, 하나님의 대적자를 위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도록 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의 의지가 자주 대적자의 의지와 같았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의 전투의 대상이다. 왜냐면 그들의 혼이 의지를 자신에게 향하게 하기를 원하는 양측에 의해 구애를 받기 때문이다.

이 전에 의무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최종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간격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이 땅은 영적인 존재에게 셀 수 없게 많은 성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한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 앉는 일도 가능하고, 인간 자신의 의지가 이 둘 중에서 정한다. 인간의 의지가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가 영적인 성장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 땅의 과제를 더 이상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성장시대도 끝이 나고,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이미 끝이 없게 긴 세월 동안에 이미 극복한 상태를 다시 추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구원시대의 끝이 되면, 영적인 존재를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은 새 땅이 다시 생성되게 하고 이전의 성장시대에 실패했던 영적인 존재들로 새로운 창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영적인 존재에 속한 모든 입자들이 분해가 되고, 이런 일은 이 땅의 물질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과 같다. 그러나 새 땅을 건설하

는 일은 창조 초기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새 인류는 더 이상 이 전의 느린 성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새 인류는 옛 땅에서 시험을 통과했고, 그들이 모든 창조물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즉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데 전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없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될 수 있는 깨달음의 정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구원시대는 단지 이전의 구원시대의 연속이고, 새로운 창조물의 출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할 가능성을 목적으로 이 땅의 표면의 겉형체 변화와 이 땅의 표면의 재구성만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땅의 자체는 남아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다시 묶임을 받게 될 영적인 존재를 풀어준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는 다음 형체를 받게 위해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 새 땅의 사람들은 성숙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가 그들이 낙원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항상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초기에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이는 부인할 수 없게 새로운 창조물의 느린 성장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낙원을 만들고, 이 낙원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장 우아한 마법적인 창조물들을 전제로 한다. 이런 창조물들은 순간의 작업으로 생성된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자신의 의지가 한 순간에 무한 가운데 실행에 옮겨지게 한다. 마찬가지로 새 땅도 시간이 걸리지 않고 생성이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불가능한 일이 없고, 그의 의지가 역사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의 사랑과 지혜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부족함의 근거를 하나님의 역사에 둔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만이 이런 기준을 적용시킨다. 그러나 새 땅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이 땅의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새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돕는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과 태양의 충돌. 연구하는 사람. 이 땅의 내부.

B.D. No. **0945**
1939 년 6 월 3 일

특정한 시간에 이 땅이 태양에 접근함으로써 이 땅의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공될 것이다. 이 증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영적인 연결을 통해 모든 사건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적인 소식을 통해 받은 이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과학은 새롭게 다시 그런 증상의 해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인류가 이런 계시를 믿지 않는 동안에는 인류는 같은 어두움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학자들의 계산은 한편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언제 일어나게 될지를 알아내려는 거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지식의 원천을 활용하지 않는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건너 갈 수 없는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 경계를 거부한다면, 그는 절대로 전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창조의 질서를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관계없이 항상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물의 계속되는 성장과 성숙을 향한 지식을 제공한다. 단지 이런 계시들이 진리로 간주 받지 못한다. 반면에 과학적 진술과 계산은 결정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계산한 시간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없다고 완전히 확신한다. 사람은 심지어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태양과 태양의 역사를 이용하여, 태양의 힘을 감소시켜, 이 땅과 태양의 충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모든 순전히 세속적인 시도와 결과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분명한 지식을 얻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생각을 혼동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항상 어떤 인간도 창조물의 출현에 기여할 수 없다는 증거이고, 사람이 단지 이 땅의 표면을 개조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지혜, 전능함이 이룬 것이고, 인간이 오랫동안 존재해온 법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런 짐작하는 재앙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이 땅의 중심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반란을 일으켜, 연구자들의 모든 계산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세상의 연구자들의 계산과 과학적 결과에서 최근에 예견된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지혜가 충만한 영원한 신성에 의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내부와 또한 표면의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일은 끊임없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로써 지각 변동과 상승과 함몰이 발생했고, 또한 변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지각의 이동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 땅은 변함없이 겉형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성질은 동일하게 머물지만, 가장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반면에 이 땅의 내부는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내부에서부터 이 땅의 표면을 변화시킨다.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관찰할 수 없지만, 수천 년에 걸쳐 변화해왔고, 또한 절대로 동일하게 머물지 않은 이런 변화를 식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되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러므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내부의 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땅의 표면에 큰 파괴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놀람과 공포를 갖게 하고, 이전의 굳은 형체가 용해되고, 이 땅의 내부 원소의 억제가 없는 활동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의 내부에서 이 땅의 표면까지 엄청난 힘으로 분출이 되어, 흩어져,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이 땅의 흙이나 자연의 창조물에 도에 적응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원소적인 분출은 당연히 이 땅의 전체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기존의 것은 파괴가 되고, 인간에 의해 세워진 질서는 뒤집히고, 상상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나, 사람들은 극심한 당황과 위험에 빠진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이 땅의 분출에 대처할 수 없고, 분출을 통해 완전히 다른 생활 조건 아래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1942 년 8 월 13 일) 이에 대한 설명을 단지 영적으로만 해줄 수 있지만, 이 땅의 표면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변화를 통해 건설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소멸이 된다. 그러나 이일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일은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내부에서 위를 향해 해쳐 나오는 일이고, 영적인 존재는 형체 안에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이 많은 단계를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생각할 수 없게 긴 기간 동안 가장 굳은 형체 안에 묶여 있었고, 이제 존재에게 어느정도 자유가 주어져, 존재가 스스로 굳은 형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한다. 자유롭게 되는 일을 자연의 원소가 수행한 것이다. 이런 힘의 표현을 사람들은 자연 재해로 깨닫고, 그 정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크거나, 적게 고통을 준다. 비로 모든 영적인 존재가 다시 묶임을 받지만, 그럴지라도 우선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압박하고, 더 강한 정도로 사람들을 압박하여, 사람들을 그들의 평안함에서 깨어나게 하고, 극도로 위협을 받게 한다.

이 땅의 표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임의로 일어날 수는 없고, 단지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의 더 높은 성장이 정지될 때, 다시 말해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일에 동의한다. 그러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이미 성장한 영적인 존재를 더 높은 성장 단계로 다시 밀어 넣어, 균형이 이뤄져야

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들이 곧 자유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은 때때로 항상 다른 장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해야만 한다. 이런 변화는 항상 지구 내부의 원소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한 일이다.

그러므로 알게 된 사람은 자연 재해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단지 세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다. 그는 영적인 존재들의 높은 성장이 필요함에 대해 알고, 마지막 겉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저조한 영적인 상태를 알고, 이런 존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큰 파괴를 초래하는 자연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의 영적 가치도 또한 세상적 가치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공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기력하게 원소들이 격동하는 일에 노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때가 되었다고 여기면, 영원으로부터 결정된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아멘

이 땅의 변화와 화산 폭팔.

B.D. No. **6282**
1955 년 6 월 11 일

창조물의 해체가 일어날 때 이 땅의 핵심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땅은 행성으로 남아 있고 단지 이 땅의 표면이 완전히 변형되어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땅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해방될 것이고 새로운 형체 안에서 성장 과정이 계속 진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충격이 묶임을 받은 존재를 해방시키고 물질이 큰 규모로 분해가 되고 다시 굳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의 부족함이 이런 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사고에게 비유해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행하는 일의 영향을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를 알았다면, 그들은 최종적인 지식이 없는 실험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 끔찍하게 놀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영적인 존재의 구속의 계획에 고려가 되고 그런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물질 안에 묶여 있는 존재를 해방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이고 한 구원 시대가 끝이 날 것이고 새로운 구원시대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새로운 겉형체를 취하게 된다.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들이 생성되고 구원시대가 끝날 때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땅은 계속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이 자신의 과제를 완수하기 전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옛 형체로는 더 이상 이 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면 모든 것이 질서를 벗어났고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을 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물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의도하는 일이다. 대적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는 그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모든 존재를 다시 받아드리고 이를 통해 그가 점점 더 많은 추종자들을 잃게 되고 마침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 영적인 존재에게 성숙하게 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게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최종적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

이번 구원 시대의 종말은 영원으로부터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아주 가능한 가장 큰 규모의 화산 폭팔을 생각하면 될지라도 이런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전혀 모른다. 그런 화산 폭팔이 항상 또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산 폭팔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땅의 내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향들로 폭팔이 일어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폭팔의 원인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므로 대적자와 대적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의지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고려되었고 그러므로 지옥과 지옥의 추종자들도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섬 긴다. 어두움의 세계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돕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위를 향해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일에 기여한다.

아멘

낙원과 같은 세상

B.D. No. **6561**
1956 년 6 월 2 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이 땅이 이미 낙원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고 고난이나 슬픔이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평화로운 조화 속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단지 서로의 안녕과 안전을 유지시키려고 시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갈등도 시기도 탐욕도 없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오만함과 성급함이 없고 적대감도 없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자신과 연결을 이룬 사람들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은 낙원이라고 할만큼 축복받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뜻을 아주 열성적으로 수행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적대하며 살고 아무도 이웃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운데 단지 자신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 땅은 낙원이 돼야 한다. 사탄의 행실을 그치게 만들 때가 되었고 인류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때가 되었고 아직 자신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분리되야만 때가 되었다. 이 땅이 정화되야 할 때가 되었고 이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변모할 때가 되었고 사랑이 다시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가 되었다.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앞두고 있고 이런 정화되는 일과 옛 땅의 종말을 앞두고 있다. 너희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이런 변화는 영원으로부터 계획되었다. 왜냐면 그가 또한 영원 전부터 사람들 사이의 사랑 없는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가 더 이상 높이 성장을 허용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 땅의 종말이 필요하게 만든다.

이 땅은 실제 영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성장하는 장소가 되야 하고 혼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해야 하고 그들은 또한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이 땅의 삶에서 이미 낙원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육신을 입는 일의 은혜를 잘못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사랑이 없는 상태에 머물고 그들 자신이 고난의 삶과 비참함과 질병과 염려하는 삶을 만들고 육체적으로나 혼적으로 멸망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제한 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류에게 제한이 가해져 있고 이로써 다시 새롭게 성장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비록 이런 제한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성공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땅은 창조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성숙을 진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 땅의 낙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고난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너희가 낙원을 소유할 수 있는 무리에 속하게 되려고 노력하라. 너희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노력하라. 너희는 종말의 때까지 남은 짧은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자신의 사랑 계명을 성취시키기를 너희에게 요구한다. 왜냐면 곧 은혜의 시간이 끝날 것이고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은 영을 위한 학교이다.

B.D. No. **4336**
1948 년 6 월 15 일

이 땅을 영을 위한 학교로 여기고, 영원한 축복을 위한 양육 장소로 여기라. 나를 너희의 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가 성장하여 온전한 피조물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너희의 교사로 여기라. 이로써 피조물이 스스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따라서 불행한 것을 바꾸는 일을 위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한다. 이 땅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지 말고, 단지 형체가 된 의지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큰 사랑의 표시인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라.

너희가 나의 힘으로부터 생성되었고, 너희가 나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라. 너희가 나의 일부로써 나에 의해 절대로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뜻대로 역사하기 원하면, 너희가 온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이제 나를 생각하면

서 창조물을 관찰한다면, 창조물 전체가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 자신이 이런 창조물의 중심임을 생각하고, 너희가 이성과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가장 고도로 성장한 창조의 작품임을 생각하고, 너희가 피조물로서 너희의 창조주와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음을 생각하라.

비록 세상이 너희에게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상의 생명이다. 왜냐면 내가 사랑으로 돌보는 이 땅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너희 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를 영의 나라로 이끌기 원하고, 항상 나의 임재로 영적인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존재들 중 어떤 존재도 그의 운명에 맡겨두지 않고, 나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할 필요가 없게 한다. 모든 각각의 피조물은 나의 보호로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내 은혜의 빛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삶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 땅에 묶여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그가 영의 나라를 위해 성장하고, 빛 인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내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고, 축복되게 될 때까지 끝이 없는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

이 땅은 영을 위한 학교이다. 그러므로 댓가를 치러야만 한다. 다시 말해 영에게 먼저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줘야만 하고, 영에게 자신을 혼에게 계시할 기회를 줘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이 내 의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이로써 그가 영원을 위해 합당하게 되야 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나의 사랑은 인간이 단지 그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킬 수 있도록 인간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그가 이 지식을 영접하고, 합당하게 활용한다면, 그가 이 땅에서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저항하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면, 너희는 나의 일부분이 되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나의 사랑의 표시이자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수단인 영의 역사를 통해 나의 말씀을 받게 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 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성공적으로 영의 학교를 마치게 될 것이고, 빛의 존재로 이 땅을 떠나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다시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너희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이 학교에 대해 나에게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이다.

아멘